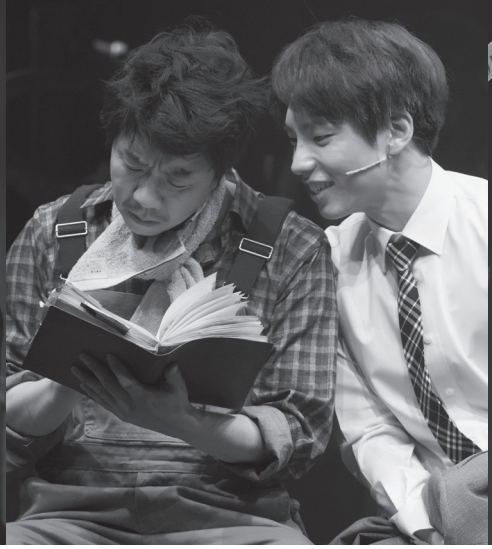
6월의 공연 musical

관능적인 춤과 재즈선율
뮤지컬 〈시카고〉

그야말로 배우가 돋보이는 뮤지컬, 무대 위에는 15인조 빅밴드와 의자, 밧줄, 부채 등 대도구뿐이다. 이 심플한 무대를 꽉 채워주는 건 세련된 조명과 흥겨운 재즈선율, 그리고 19명의 배우들의 숨 막힐 듯한 존재감이다. 이번 시즌은 6년 만에 공개 오디션을 진행하며 기존 배우들을 포함 600여명이 뜨겁고 치열했던 오디션을 거쳐 17명의 앙상블이 최종 선발되었다. 선의의 경쟁 속 선발된 배우들은 밥 파시의 숨 막힐 정도로 관능적이며 창의적인 '몸의 예술'을 멋지게 선사할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 〈시카고〉의 모든 시즌을 함께 해왔던 관록의 벨마 켈리 최정원, 역대 최고로 오랜 기간 동안 록시 하트를 연기했던 아이비, 6년 만에 빌리 플린으로 다시 돌아온 남경주, 최연소 마마 모튼으로 매년 이 작품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김경선이 14번째 시즌에도 탄탄하게 뮤지컬 시카고를 지탱한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2018년 뮤지컬 〈시카고〉의 활력을 불어넣을 배우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탄성을 자아낸다. 뮤지컬 시카고 국내음악감독으로 오랜 시간 함께한 박칼린이 벨마 켈리 역으로 변신한다. 음악감독, 연출,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해온 그녀는 항상 모든 장르에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표출해왔다. 록시 하트 역에는 김지우가 최종 낙점되었다. 그리고 연기파 배우 안재욱이 빌리 플린 역으로 완전히 새롭게 연기 변신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색깔로 무대를 장악하는 배우 김영주가 감방의 여 간수 마마 모튼 역으로 무대에 오른다. 2018년 뮤지컬 〈시카고〉는 신구 배우들이 뭉쳐 진일보한 공연을 선사한다.

5.22-8.5 디큐브아트센터



빛나게, 경쾌하게 리듬에 따라~ 〈브로드웨이 42번가〉

한국 초연 22주년을 맞이한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는 이번 2018시즌, 차원이 다른 에너지가 넘치는 무대를 통해 압도적이고 화려한 퍼포먼스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22년간 국내에서도 꾸준히 사랑 받고 있는 〈브로드웨이 42번가〉는 재즈풍의 경쾌한 스윙 음악과 그루브가 살아 숨 쉬는 탭댄스의 중독적인 리듬감, 그리고 압도적이고 화려한 단체군무 퍼포먼스가 시선을 강탈한다. 여기에 김석훈, 이종혁, 김선경, 배해선, 이경미, 홍지민, 정단영, 오소연, 정민, 강동호 등 품격 있는 캐스트로 화려한 여름 컴백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강렬한 카리스마와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공연을 훌륭히 소화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김석훈이 더욱 완성된 카리스마 연출가 줄리안 마쉬를 선보인다. 한편, 절대적 존재감의 배우 이종혁이 2018년 시즌에도 '줄리안 마쉬'로 함께할 예정이다. 도로시 역에는 김선경과 배해선의 캐스팅으로 강렬한 아우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배우의 꿈을 안고 상경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혜성처럼 스타로 무대에 오르는 페기 소여 역에는 배우 정단영과 지난 시즌 우수한 탭댄스와 탄탄한 연기를 보여준 오소연이 함께한다. 이번 뉴 버전 무대의 꽃으로 불리는 피아노씬, 거울씬, 계단씬 등 고난도 탭댄스와 단체군무를 이끌어가야 하는 메인 타이틀롤의 부담감을 뛰어넘고 당찬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6.21-8.19 CJ토월극장

불가능성에 대한 반론 뮤지컬 〈무한동력〉

원작 웹툰 연재 10주년을 맞아 뮤지컬 〈무한동력〉이 3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다. 취업 준비생, 공무원 준비생, 괴짜 발명가, 아르바이트생, 고3 수험생, 사춘기 소년까지 저마다의 꿈을 향해 나아가며 공감을 얻은 웹툰의 뮤지컬화에 다시 한 번 실력파 배우들과 창작진이 합류하여 눈길을 끈다.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지만 이 시대 가장 평범한 청년인 장선재 역에 오종혁과 김바다가 캐스팅되었다. 수의학과 휴학 후 공무원 준비 중인 수자네 하숙생, 슈퍼브레인의 트레이닝복 단벌 청년 진기한 역에는 임철수와 안지환이 코믹연기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20년 넘게 무한동력기관을 발명 중인 이 시대의 돈키호테, 수자와 수동의 아버지 한원식 역에는 김태한과 윤석원이 열연하며 연기력을 마음껏 펼칠 예정이다. 어머니가 돌

아가신 후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실질적인 하숙집 운영자, 책임감 강한 고3 수험생 한수자 역에는 박란주와 정소리가 발탁되었다. 4차원의 자유로운 영혼,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위해 무용과 중퇴 후 아르바이트생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캐릭터 김솔 역에는 정우연과 김윤지가 참여한다. 랩퍼를 꿈꾸는 질풍노도의 고1 한수동 역은 신재범이 맡는다. 꿈에 대한 열정과 따뜻한 유쾌함으로 무한에너지를 내뿜으며 관객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수자네 하숙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웃픈 에피소드를 통해 공감과 희망의 이야기를 느껴보자.

4.24-7.1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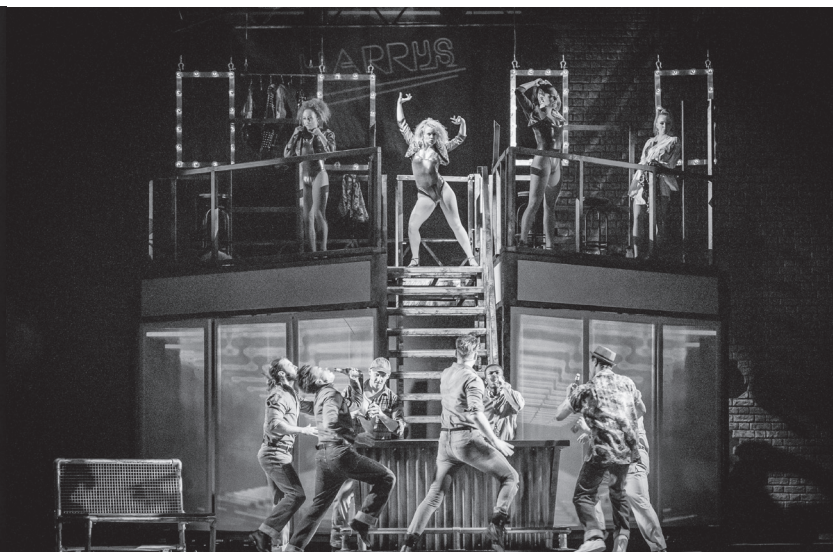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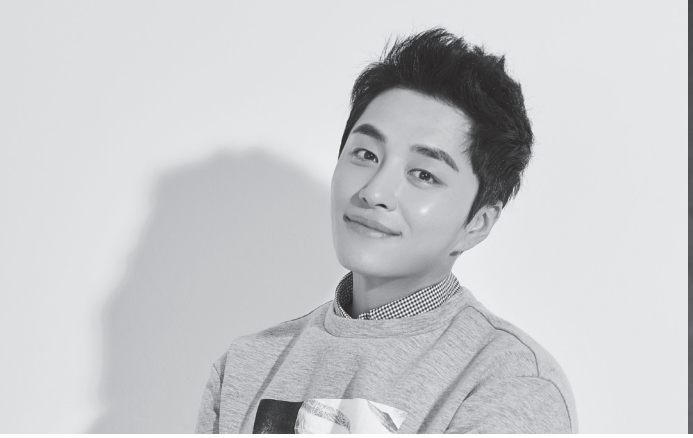
더욱 풍성하게 화려하게! 18일간의 여름 뮤지컬축제
제12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올해로 열두 번째 축제를 맞이하는 딤프(DIMF)는 체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대만, 중국,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국내/외 8개국의 우수한 뮤지컬 소개와 더불어 일반 시민을 위한 'DIMF 열린뮤지컬특강', 야외 뮤지컬 영화상영회 'DIMF 뮤지컬이빛나는밤에', 지역 뮤지컬 배우와 함께하는 '릴레이뮤지컬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신설하여 시민 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축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제12회 DIMF를 알리고 흥행을 이끌어 갈 홍보대사는 올해도 뮤지컬배우 최정원, 민우혁이 맡았다.

체코,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초청작 8편과 창작 뮤지컬

세계적인 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대작 '파우스트'를 밝고 경쾌한 음악으로 풀어낸 체코 뮤지컬 '메피스토'가 제12회 DIMF의 개막을 장식한다. 프라하 히베르니아 극장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뮤지컬 '메피스토'가 기존의 동유럽권 뮤지컬에서 보기 힘들었던 화려한 무대전환과 군무로 '체코'의 고전미와 어우러진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1980년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동명영화 원작의 뮤지컬 '플래시댄스(영국)'는 제12회 DIMF의 폐막작으로 아시아 초연 무대를 갖는다. 낮에는 용접공이자 밤에는 댄서로 일하는 '알렉스'가 꿈과 사랑으로 난관을 헤쳐 나가는 내용으로, 국내에는 '댄싱 위드 더 스타'로 잘 알려진





BBC사의 Strictly Come Dancing 우승자 조앤 클립튼과 영국 보이밴드 'A1'의 멤버 벤 애덤스가 주연을 맡았다. 당시 빌보드차트를 점령했던 'What a feeling', 'Maniac', 'Gloria' 등이 라이브 밴드의 음악과 함께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황홀함을 보여준다.

'프랑스 샹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수, 에디트 피아프(Edith Piaf)의 일생을 다룬 프랑스 뮤지컬 '아이 러브 피아프'가 파리에서 시작하여 몬트리올, 아테네, 런던, 로마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를 거쳐 DIMF에 상륙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밋빛 인생(La Vie en Rose)'을 살았던 그녀의 명곡에 일렉 기타와 아코디언으로 색다른 해석을 더한 3인극이다.

불멸의 명작,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러시아의 창작뮤지컬로 DIMF를 찾는다.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은 짜임새 있는 무대 활용과 러시아 특유의 예술이 녹아있는 작품으로, 특히 원작의 '발코니 씬'을 트램펄린으로 재해석한 장면은 이 작품의 백미가 될 것이다. 또, 제11회 DIMF 창작지원뮤지컬상 수상작 '피아노포르테'는 지난 1년간 디벨롭(develop)을 거쳐 DIMF 공식초청작으로 다시 관객 앞에 선다. 탈북 피아니스트와 어린 천재 피아니스트가 서로의 상처를 통해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감정선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뮤지컬 넘버가 작품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며, 카자흐스탄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는 카자흐스탄 뮤지컬 '소녀 지벡'이 이색적인 감동을 선사한다. 대만의 대표 뮤지컬 배우로 손꼽히는 첸핑린(陳品伶)이 6가지 역할을 소화하며 팔색조 매력을 선보일 1인극 '맨투밋(Meant to Meat)은 서른 중반을 향해가는 나이와 결혼의 압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변호사 '르네'의 이야기로, 대만 20-30대 여성의 폭발적인 공감과 지지를 얻어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더욱 윤택한 직장생활을 위해 자신들이 부부임을 속이고 싱글인 척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중국의 'Mr. & Mrs. SINGLE'은 코믹하고 유쾌한 해프닝 속에서도 현대인 내면의 욕망과 진정한 자아,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진다.

그밖에 지역의 우수한 창작뮤지컬을 소개하는 특별공연 3편과 대학생들의 꿈의 무대로 제12회 DIMF 대학생뮤지컬페스티벌 9팀이 관객과 만난다. DIMF의 강력추천 '신상 뮤지컬'로 제12회 DIMF 창작지원작 4작도 눈여겨볼만하다. 제12회 DIMF는 대규모 뮤지컬 갈라콘서트 〈개막축하공연〉가 6월 23일(토) 19:30부터 대구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펼쳐진다. 18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피날레 〈제12회 DIMF 어워즈〉는 7월 9일(월) 19:30부터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된다. 화려한 축하 공연과 함께 제12회 DIMF를 빛낸 각 부문의 수상자가 선정될 〈제12회 DIMF 어워즈〉는 올해도 KBS를 통해 전국 및 해외 102개국으로 송출되어 그 열기를 전할 것이다. www.dimf.or.kr

6.22-7.9 대구 시내 주요공연장 및 대구 전역